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연준, 경제둔화 신호 VS 긴축반영 시장 사이 줄다리기 전망
 - ◇ (초점)-'시스템 소화 임계점 넘는 규모였다'..LG 엔솔 청약에 유탄 맞은 자금시장
 - ◇ (초점)-유가 급등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무역수지 연속 적자 가능성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연장은 폐쇄하고 미용실 영업은 허용한 조치에 반발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고 미용사가 머리 손질을 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피로슈카 반 데 보우브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2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194.0	-0.6%	-0.4%	-8.6%	유로	1.1342	-0.6%	-0.2%	-6.9%
100엔 대비	1,049.0	-0.7%	-1.5%	+1.8%	엔	113.70	0.5%	1.2%	-10.3%
유로 대비	1,352.7	0.4%	-0.1%	-1.9%	위안	6.3396	0.2%	0.2%	+2.7%
위안 대비	188.14	-0.4%	-0.6%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265.37	-4.6%	-5.7%	+18.7%
코스피	2,834.29	-3.0%	-4.8%	+3.6%	나스닥	13,768.92	-7.6%	-12.0%	+21.4%
코스닥	942.85	-2.9%	-8.8%	+6.8%	S&P500	4,397.94	-5.7%	-7.7%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630.01	-1.3%	0.0%	-4.9%
국고채 3Y	2.132%	8.8bp	33.4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352%	11.3bp	34.1bp	+67.6bp	미국채 2Y	1.010%	4.0bp	28.0bp	+61.0bp
국고채 10Y	2.540%	8.7bp	29.0bp	+53.7bp	미국채 10Y	1.770%	-2.0bp	26.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4.83	0.7%	12.4%	+55.8%	한국 5Y	23.6bp	0.1bp	1.5bp	-0.7bp
금(현물)	1,833.75	0.9%	0.3%	-3.6%	일본 5Y	17.6bp	0.0bp	0.0bp	+2.1bp
TR상품지수	3,319.00	1.7%	-0.6%	+24.6%	중국 5Y	47.1bp	3.5bp	5.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월 24일(월)>

- 한은, CBDC 모의실험 1 단계 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 ·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발간(12:0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5:00)

<25일(화)>

- 금감원, 2021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한은,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기재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08:00)
- 통계청, 2021년 12월 국내인구이동(12:00)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23:00)

<26일(수)>

- 한은,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한은, 2021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12:00)
- 통계청, 2021년 11월 인구동향(12:00)

<27일(목)>

- 한은,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년 4분기)(12:00)
- 한은, 2021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기재부,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17:00)

<28일(금)>

-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 통계청,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논고: 기업의 가격설정행태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12:00)
- 한은, 2021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기재부, 2022년 공공기관 지정(15: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월 24일(월)>

- 일본 1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1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1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25일(화)>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6일)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월 서비스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22:30)
- 미국 11월 FHFA ·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3:00)
- 미국 1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26일(수)>

- BOJ, 1월 17-18일 통화정책회의 주요 의견 공개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건축허가 (22:00)
- 미국 12월 도 · 소매재고 (22:30)
- 미국 12월 신규주택 판매 (자정)
- 캐나다은행, 금리 결정 발표 (자정) · 티프 맥클럼 총재 기자회견 (27일 오전 1시)

<2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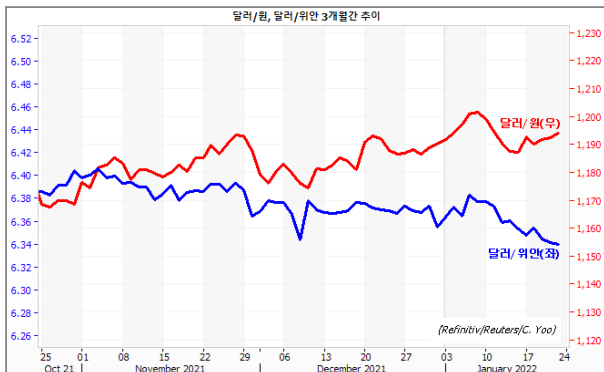
- 연방준비제도 FOMC, 금리 결정 발표 (04:00) ·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 중국 12월 산업이익 (10:30)
- 미국 12월 내구재주문 (22:30)
- 미국 4분기 GDP 속보치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2월 잠정주택지수 (자정)

<28일(금)>

- 미국 1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01:00)
- 일본 1월 도쿄 CPI (08:30)
- 유로존 12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 (18:00)
- 유로존 1월 기업환경지수 ·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19:00)
- 미국 12월 PCE 물가지수 (22:30)
- 미국 4분기 고용비용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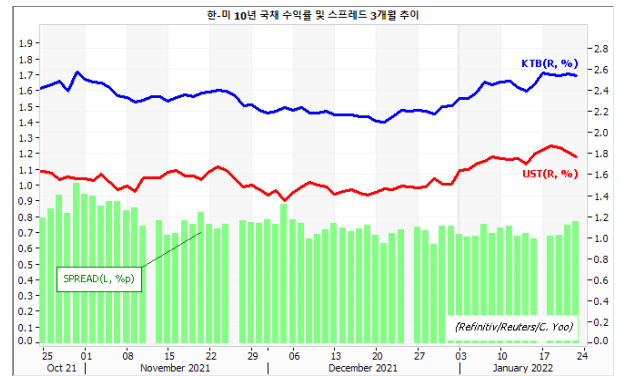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전후해 변동성을 대폭 키울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85-1205 원이다.
-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로 자산별로 변동성이 이미 확대된 상황 속에서 열리는 올해 첫 연준 정책회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이에 더해 빠른 양적 긴축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한껏 예민해진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연준의 명확한 시그널이 있을지 주목된다.
- 금리, 통화, 주가를 비롯한 모든 자산시장이 연준 회의 결과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도 이 같은 대외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겠다.
- 또한, 이번 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이 발표될 예정으로 최근 약세 변동성을 한껏 키우고 있는 증시 동향도 원화의 주요 변수다.
- 최근 활발한 조선사 수주와 LG 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에 따른 원화 환전 수요 등이 역내 수급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둔 달러 공급 기대도 있다.
- 하지만, 연준 회의 결과에 따른 역외 투자자의 반응과 설 연휴를 앞둔 보수적인 시장 관리가 원화 약세 변동성을 키울 여지는 분명 있다.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을 염두에 둔 민첩한 시장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 25 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시장금리가 이미 연말 기준금리 1.75%를 반영한 상황에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취약하다.
- 기준금리는 세 차례나 인상됐고 경제 성장률이 내년부터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궤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공급 교란 여파로 급등한 물가도 연말로 가면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예측 기관의 분석이다.
- 한국시간으로 오는 27일 새벽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담이 대내외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FOMC가 이번 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선물 시장에서 현재 3월 금리 인상 확률을 90% 이상 반영하고 있다. 일부에선 3월에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 그렇다면 FOMC 회의는 국내 채권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가 될까?
- 분명 일정 부분 금리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수급과 관련한 부담이 문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시장이 강해질 때마다 한발 빨리 포지션을 줄이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금리 하단이 두터워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석)-연준, 경제둔화 신호 VS 긴축반영 시장 사이 줄다리기 전망

워싱턴, 1월 21일 (로이터) - 그간 인플레이션 대응 계획을 세웠던 연방준비제도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둔화 신호와 연준 기대보다 더 이른 긴축을 전망하는 시장에도 맞서야 할 것이다.

경제 지표는 부진하고 투자자들은 이른 긴축을 전망하는 등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면서 다음 주 연준 정책회의가 예상외로 복잡해질 수 있다. 보건 문제 관련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연준의 공격적인 움직임 전망하며 빠르게 조정에 나선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회의에서 모든 관리들이 2022년 최소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점치고, 절반은 세 차례까지 예상하는 등 연준은 올해 금리가 인상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그리고 통화정책 긴축을 위한 두 번째 수단으로 9조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 언급했다. 이에 이번 1월 회의에서는 3월 첫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말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 메시지를 다듬기 시작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사이 리스크가 커졌다.

인력 관리업체 UKG 자료에 따르면 1월 16일로 끝나는 한 주간 교대근무는 직전주 대비 5%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1월 고용지표가 12월에 이어 또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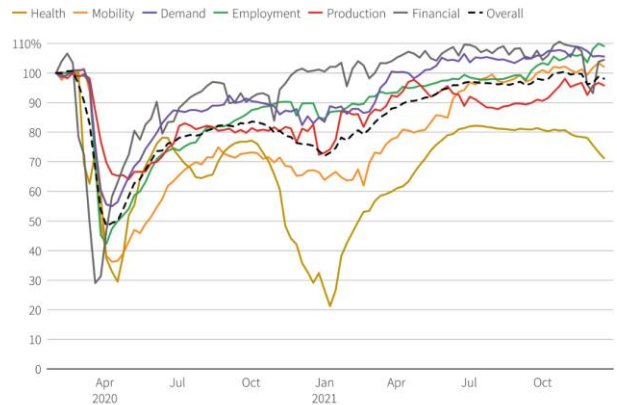
또한 계절적 요인 영향도 있긴 하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월 15일까지 한 주간 28만 6000건으로 늘어나, 10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소매판매 지표도 매우 실망스러웠고, 다른 실시간 경제 활동 지표도 하락세를 보였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오렌 클라치킨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회복세가 조금 더 약해졌다"라고 말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경제 회복 지수는 작년 10월 100을 기록한 후 최근 몇 주간 하락했다.

Oxford Economics Recovery Index

The consulting firm's index has edged lower in recent weeks, a sign the current coronavirus outbreak is weighing on economic activity.



Source: Oxford Econom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 부진이 곧 완화된다고 보고 있고, 코로나 19 하루 감염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가게 가처분소득을 지원했던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다른 리스크들이 남아있다.

나티시스의 조셉 라보르그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성장 부진 신호를 "오미크론 관련 혼란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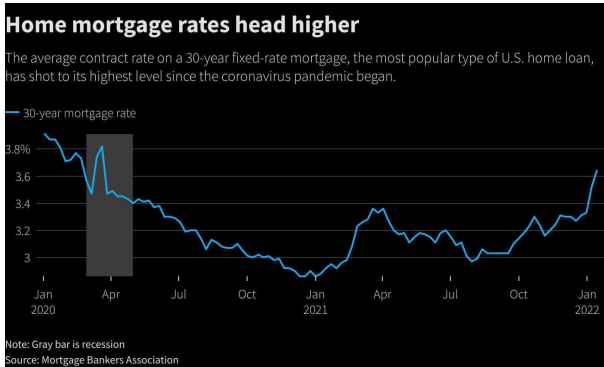
그는 "이는 실수다. 올해 재정 여건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타이트해질 것"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연준 정책이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키고 경기 침체까지 촉발할)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덧붙였다.

◆ 시골벽적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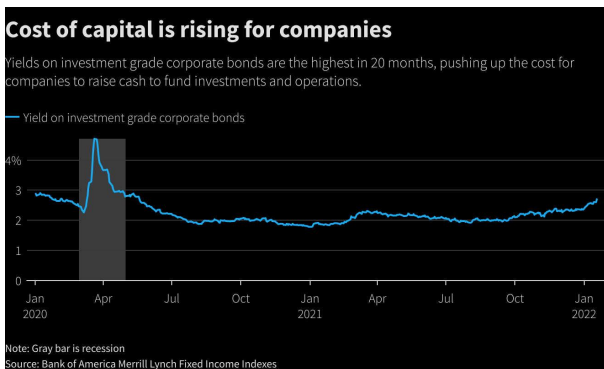
오는 25~26일 열리는 정책회의에서 연준이 직면한 가장 힘든 과제는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낮추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컨센서스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에 나섰다. 금리선물시장은 올해 최대 다섯 차례의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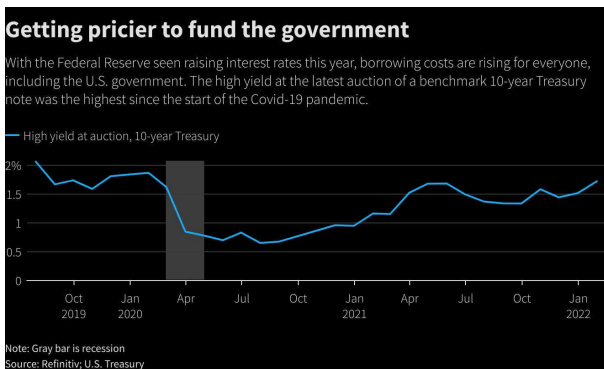
지어 미국 정부까지 포함해 실질 차입 비용이 그 결과 급등했다. 미국 증시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와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연초부터 급락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20여 년 만에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과 대차대조표가 예상보다 빨리 축소되고 신용여건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추측에 시장은 시골벽적이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는 연준 관리들조차도 예상보다 큰 지출 및 고용 둔화 등을 감수하지 않고 연준이 얼마나 빨리 정책을 긴축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일종의 인플레이션 충격 요법으로 연준이 3월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런 분위기는 없다며 "우리는 시장에 그런 극적인 것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라고 지난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연준은 오랫동안 직면해 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기간이 늘어나 연준의 영향력 밖에 있는 채널을 통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 하고 있다.

10년 이상 연준은 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 우려해 왔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초점)-'시스템 소화 임계점 넘는 규모였다'..LG 엔솔 청약에 유탄 맞은 자금시장

서울, 1월 21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 증거금을 기록한 LG 에너지솔루션의 공모 청약으로 자금시장이 유탄을 맞고 큰 혼란에 빠졌다. 현재의 자금시장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밀려들면서 돈을 빌리는 쪽도 빌려주는 쪽도 곤혹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자금시장 소화 임계점 넘은 LG 엔솔 청약

21일 레포금리는 전날보다 20bp 상승한 1.70%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17일 1.30% 수준에 마감했던 레포금리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공모 청약이 개시된 18일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청약자금 환불일인 이날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이번 청약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금이 몰리면서 단기자금시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으리라는 점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다.

은행 예금이나 종합자산관리(CMA),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서 유출된 자금이 LG 에너지솔루션

일반 청약자금 중 증거금으로 납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 단기자금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청약예수금으로 묶이면 자금이 빠진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IPO 주관사의 청약증거금이 한국증권금융으로 예치돼 수시입출식예금(MMDA)이나 레포로 운용되는 만큼 수급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대형 IPO 때는 일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이 늘면서 레포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 은행권 역대급 청약 자금 소화 못해 레포금리 급등

문제는 청약 증거금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는 점이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최종 공모 청약 증거금은 114조 1066 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국내 IPO 증거금 규모 1 위인 SK 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기록(81 조원)을 33 조원 이상 넘는 규모다.

청약 증거금을 받은 증권사들이 이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은행 신탁계정에서 결제 리스크를 이유로 소화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게 시발점이었다. 114 조원 규모의 자금이 청약으로 몰려갔는데 실제 자금시장에 다시 운용된 자금은 그보다 훨씬 줄어들다 보니 수급이 꼬이게 됐다.

지난 20 일에는 레포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증권사가 마감 직전까지 결제를 하지 못해 상당히 위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 은행 자금운용역은 "보통은 공모 청약때문에 빠져나간 자금이 은행 신탁으로 흡수되면서 레포금리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달랐다"며 "청약 증거금 규모가 너무 크니까 결제리스크 때문에 은행들이 다 소화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B 자산운용사 MMF 담당자는 "SKIET IPO 때 80 조원의 경우 시장에서 꾸역꾸역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여가서 30 조원 넘게 늘어나니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은

행 신탁으로 자금을 넘기는 게 어려워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몇 조원만 수급이 들어져도 흔들리는 게 자금시장"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IPO 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약 제도 자체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청약자금의 환불이 시작되면서 일정 부분 레포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당장은 환불될 증거금이 IPO 주관 증권사 계좌에 남을지 아니면 원래 있던 계좌로 돌아올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자금시장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C 은행 자금부장은 "청약 자금이 증권사 계좌에서 빠질지 다음 청약으로 이동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IPO 주관사도 오늘은 운용을 못한다"며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쪽도 얼마나 돌아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돈은 있는데 돈주인이 정해지지 않는 날이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금 이동이 확인되는 오후부터는 레포금리도 일정 부분 안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초점)-유가 급등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무역수지 연속 적자 가능성

서울, 1월 2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작년 12월 이래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1월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344억달러, 수입은 38.4% 증가한 401억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56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 같은 기간 무역수지가 7억달러 적자였고, 전달 20일까지 무역적자 규모가 24억달러 적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대폭 확대됐다.

통상적으로 월말에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계절적 요인과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 급증 탓에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1월 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적은 2009년, 2010년, 2012년에도 있었지만 2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없었다.

▲ 높아지는 연속 적자 가능성

작년 12월 수입 중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수입 금액은 작년 대비 약 66억달러 급증한 탓에 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그 결과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20일까지 수입 현황에서는 원유가 전년동기대비 96.0%, 가스 228.7%, 석유제품 85.7% 각각 급증했다. 따라서 1월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한때 원유가격이 2014년 10월 이후 최고로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전달 대비 무역수지 적자 규모 또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수출이 좋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때문에 1월에도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심상치 않은 유가, 취약한 원화

단기적인 공급 차질과 글로벌 회복 수요 그리고 동유럽 지정학적 불안 등의 이유로 유가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어 당분간 외환시장의 수급 긴장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 약세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비용상승,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악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은 다른 통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OPEC 관계자들은 배럴당 유가 1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기했고, 골드만삭스는 하반기 100달러를 전망하기도 했다.

과거 유가와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두바이유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 경상수지 흑자는 160억달러대로 급감한 반면 저유가 기조가 뚜렷했던 2015년에는 경상흑자가 1050억달러로 사상 최대로 급증한 바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석유제품 비중 확대로 유가의 무역수지 영향력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영향이 적지는 않다"면서 "저유가가 자리 잡기 이전인 2010년~2014년의 무역흑자는 연평균 380억달러인 반면, 2015년~2019년은 770억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팬데믹 정상화로 인한 수입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 무역흑자는 295억에 불과했는데, 만약 유가가 80달러 언저리에서 유지된다면 올해 역시 대규모 흑자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해외투자자 환시 수급이 타이트해져있는 상황에서 경상부문의 흑자 감소는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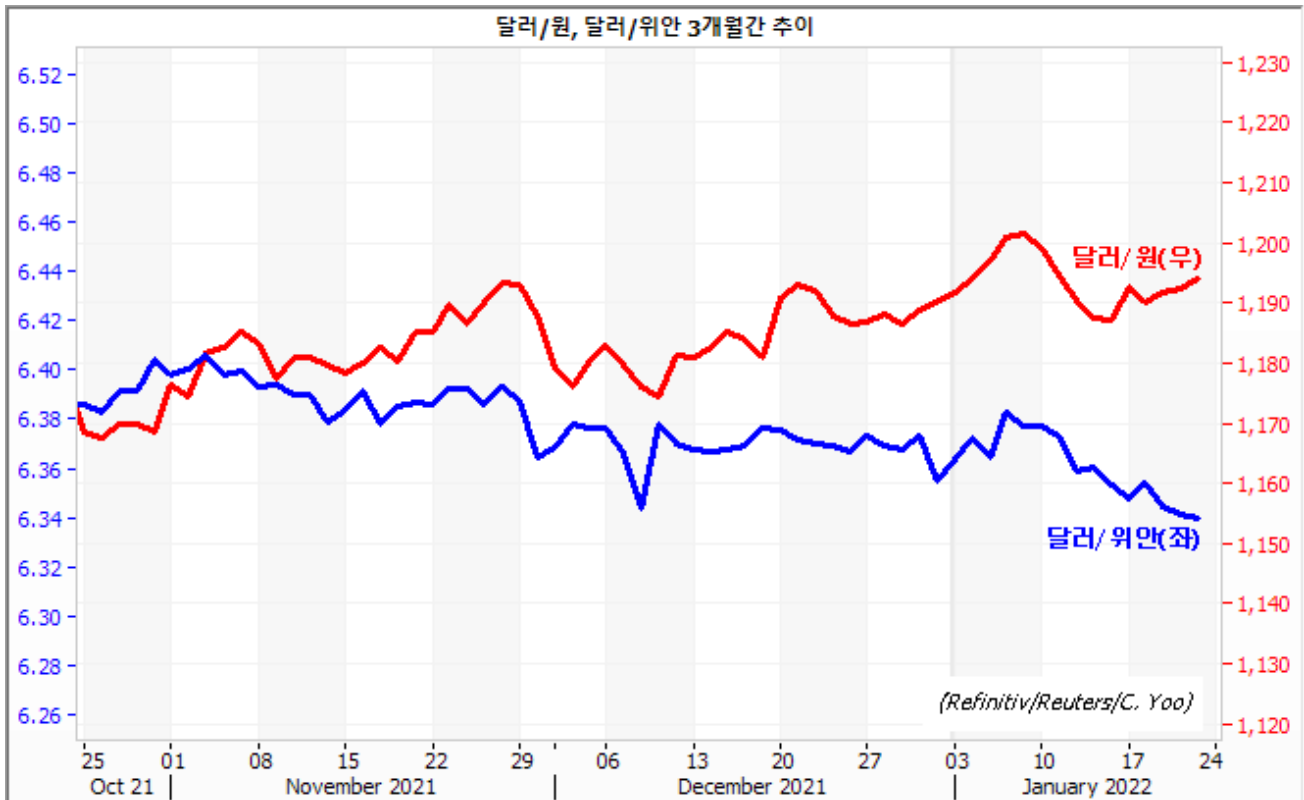
물론 무역수지에 반영되지 않는 선박 수주에 따른 달러 공급 등의 외환수급 여건은 반영돼야하겠지만, 주요국 인축 기조와 맞물린 달러 강세와 함께 나타나는 유가 급등은 원화 환경에 우호적일 수 없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미국 국채 금리와 유가 동향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다. 당장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와 유가 100달러가 도달한다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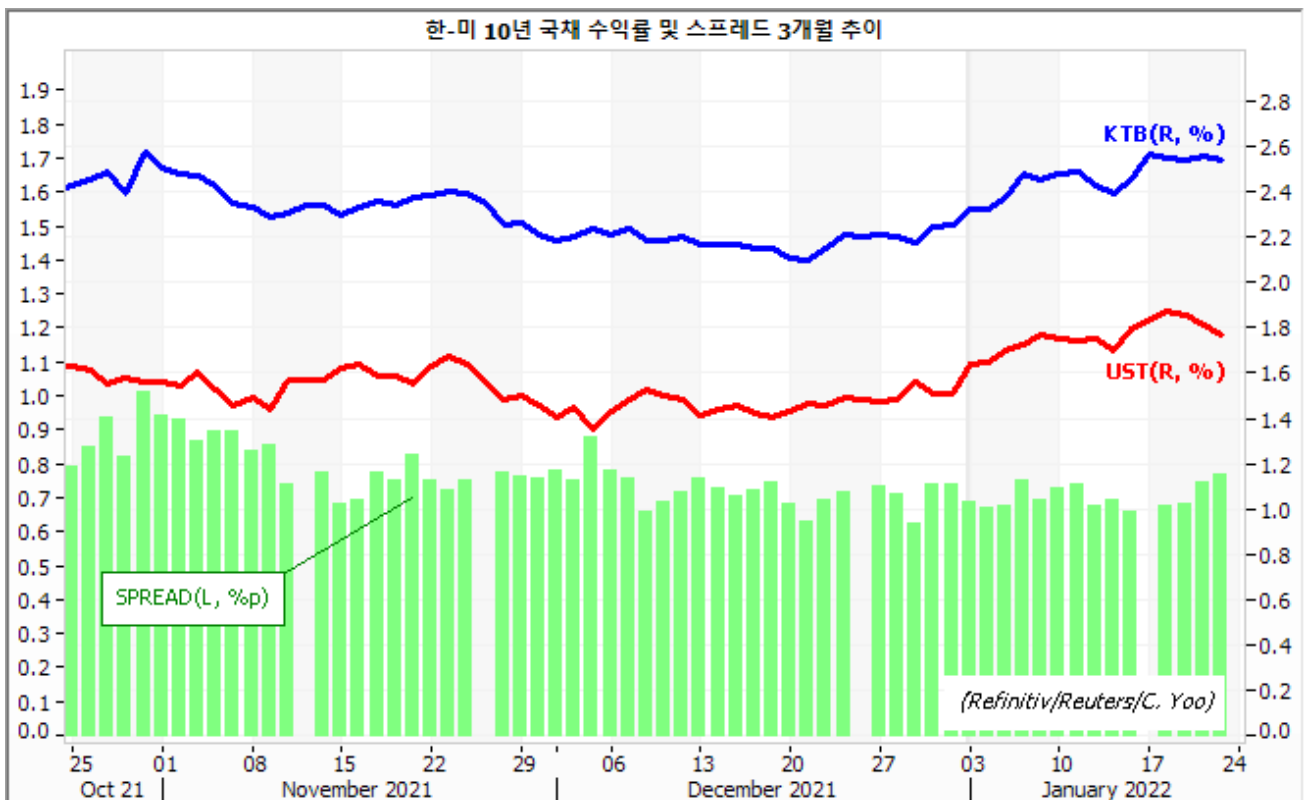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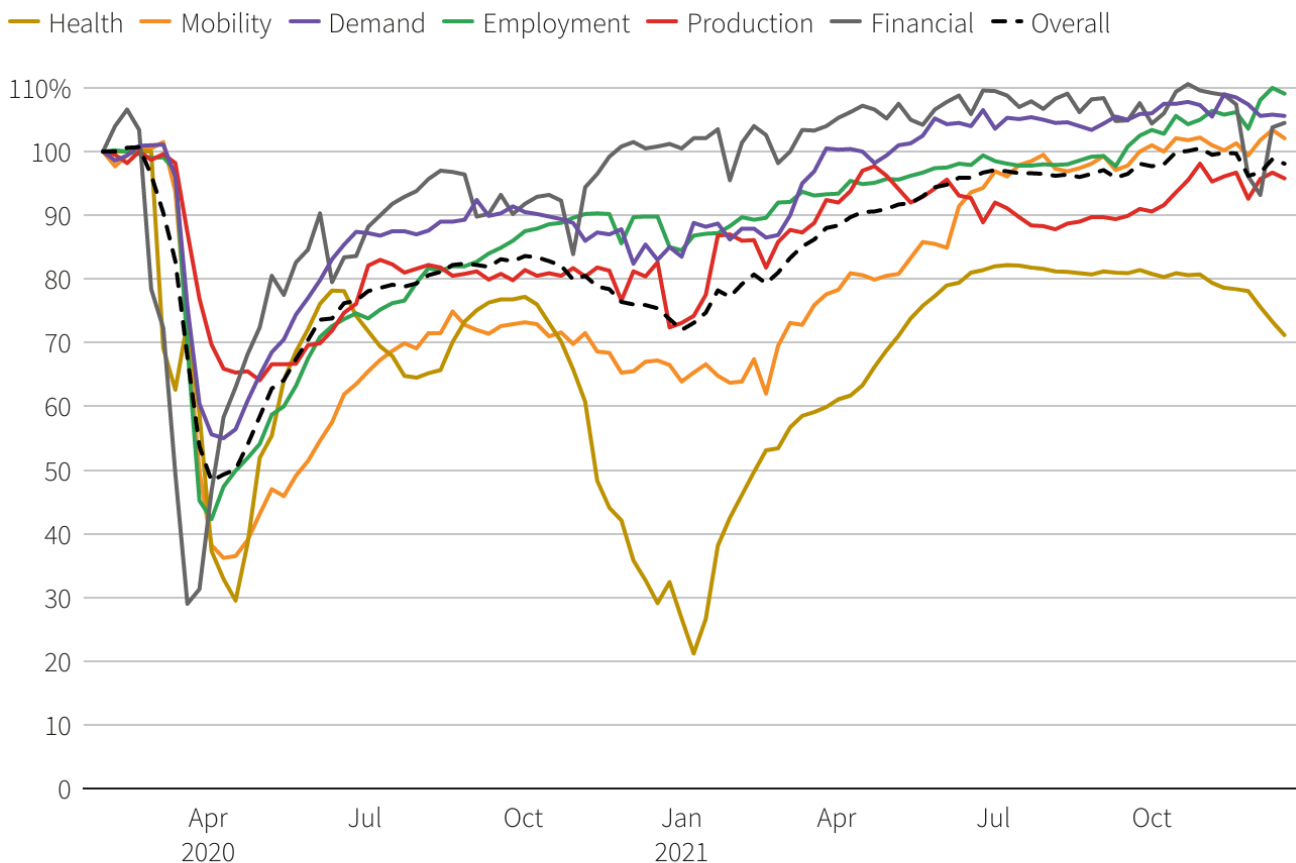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Oxford Economics Recovery Index

The consulting firm's index has edged lower in recent weeks, a sign the current coronavirus outbreak is weighing on economic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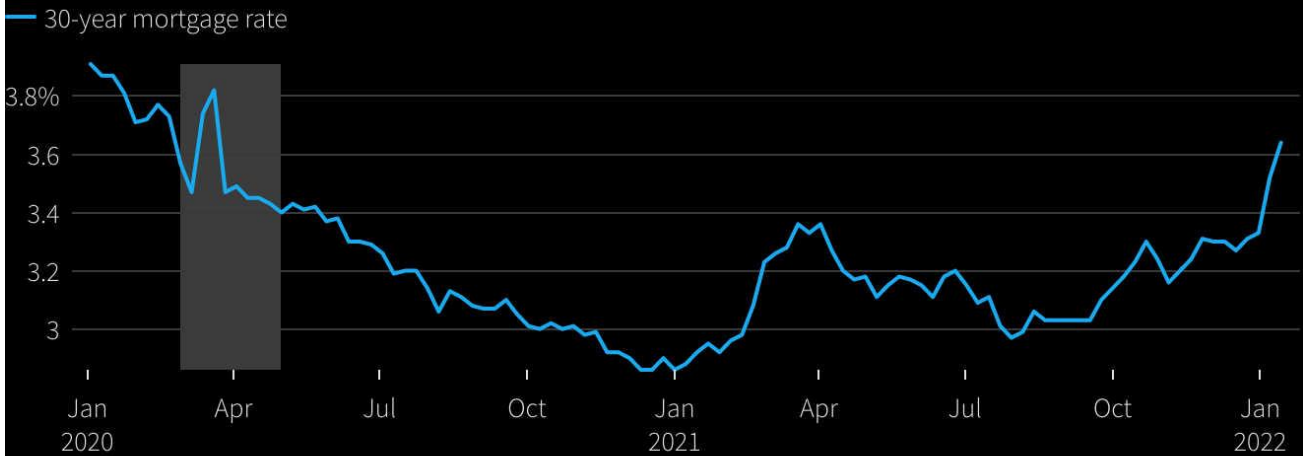


Source: Oxford Econom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Home mortgage rates head higher

The average contract rate on a 30-year fixed-rate mortgage, the most popular type of U.S. home loan, has shot to its highest level since the coronavirus pandemic be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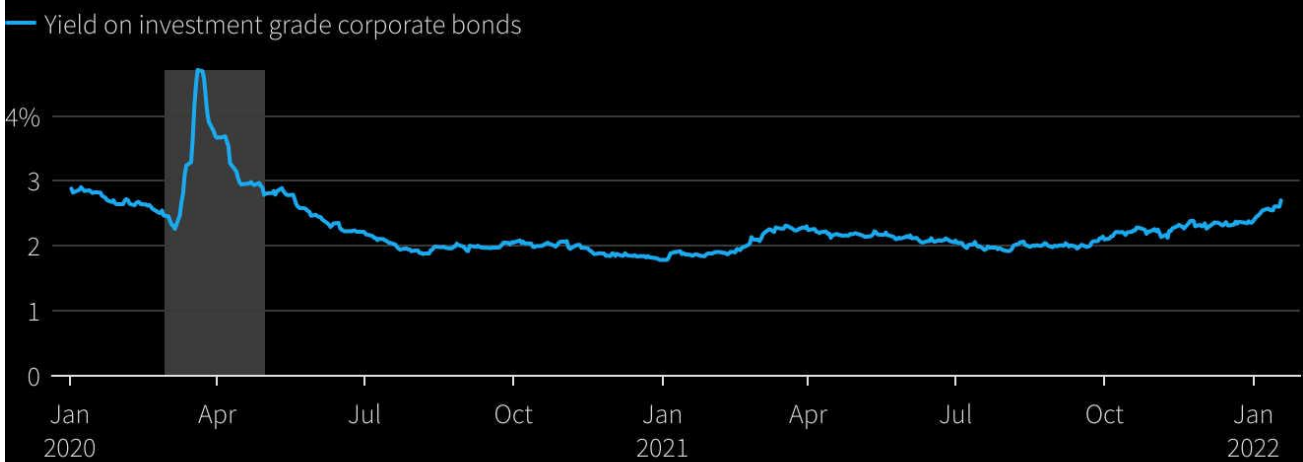
Note: Gray bar is recession

Source: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ost of capital is rising for companies

Yields on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s are the highest in 20 months, pushing up the cost for companies to raise cash to fund investments and op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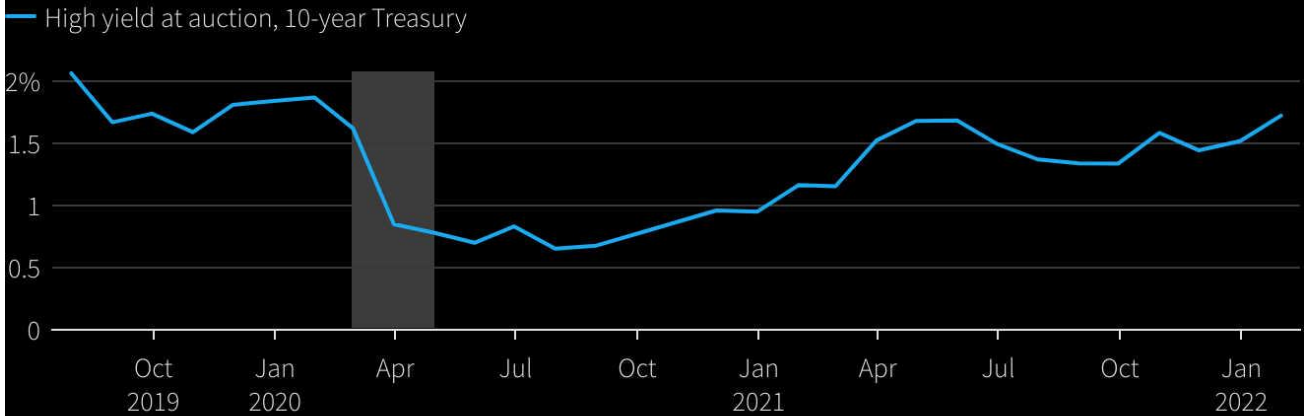
Note: Gray bar is recession

Sourc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Fixed Income Indexe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Getting pricier to fund the government

With the Federal Reserve seen raising interest rates this year, borrowing costs are rising for everyone, including the U.S. government. The high yield at the latest auction of a benchmark 10-year Treasury note was the highest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Note: Gray bar is recession

Source: Refinitiv; U.S. Treasury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